

한국 무속 신화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 연구*

강지연** · 오세정***

<차례>

1. 서론
2. 신화 속 여성 죽음의 서사 구조
3. 죽음/삶의 서사화 방식
 - 1) '삶'에서 '비-삶'으로의 서사
 - 2) '죽음'에서 '비-죽음'으로의 서사
 - 3) '삶/죽음'의 변집으로서의 서사
4. 죽음의 문화적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무속신화에서 여성 죽음의 서사에 주목하여, 삶/죽음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새롭게 읽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속신화에서 죽음과 죽음 이후 부활 사건은 여성(신)에게 국한되어 발생한다. 딸과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여성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여성이 겪는 죽음의 상황과 문제의 해결 과정은 신화마다 다르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다 죽음 사건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신화의 여성들은 공통의 과업을 수행한다. 여성의 삶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죽음 이후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에서 '삶 → 죽음 → 삶'이라는 공통의 서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삶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서사와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서사에는 언제나 '비-삶'과 '비-죽음'이라는 중간항이 놓여있다. 이로부터 삶/죽음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읽기를 탐색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22)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주저자,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조교수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무속신화에서 여성 죽음의 서사 구조와 서사화의 방식을 분석한 결과 신화의 여성들은 죽어 있는 삶과 살아 있는 죽음으로 삶의 모순을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은 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비극적 사건으로서 소멸(消滅)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어간다는 점에서 삶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무속신화의 여성 죽음은 신성한 존재의 불멸(不滅)을 믿게 하는 신성한 사건으로 이해된다. 여성은 삶에 주어진 결핍을 해소하는 기제로써 죽음과 미주하며, 이를 통해 비움으로 채움을 가능케 한다는 신화의 논리를 읽을 수 있다.

무속신화의 여성들이 이승과 저승의 삶을 횡단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문화 창조의 주역이 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동안 신화에서 보여주었던 남성신의 활약에 가려져 여성의 죽음에 내재하는 죽음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무속신화의 여성 죽음은 새로운 신의 출현을 예고하는 필연적인 서사 장치로서 기능하며, 삶/죽음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 읽기에 이바지한다.

□ 죽음, 무속신화, 여성, 삶, 문화, 죽음 서사, 바리공주, 당금애기, 청정각시, 여산부인, 원강아미, 비-죽음, 비-삶

1. 서론

신화의 주인공들은 특별한 과업을 받아 이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이후 신성한 자질을 얻어 좌정하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은 신의 영험함과 신성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에서만 다룰 수 있는 사건이다. 그렇다고 모든 신화에서 신이한 존재가 반드시 죽거나 죽은 이가 모두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신화적 인물의 죽음은 여성에게 시련으로 주어지며, 부활 역시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성한 사건이 여성에게 집중

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여성과 죽음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논의는 한국 신화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되 특별히 ‘여성의 죽음’에 주목한다. 전술했다시피, 한국의 신화에서 죽을 만큼 어려운 고행을 감내하거나, 죽음이라는 급박한 위기에 처하는 사건은 대부분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다. 이를테면, 여성은 죽거나 죽임을 당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여성을 죽이거나 살리는 행위는 남성(신)이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남성 주인공의 죽음은 한국의 신화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다. 남성 주인공의 활약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고, 역량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궁극에 남성은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을 쟁취하거나 수행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야말로 남성의 삶은 성공으로 점철된 생애를 보여준다.

신화의 이러한 대비적 인물 구도를 통해 보면 여성의 수동성과 남성의 영웅성이 대조되어 얼핏 신화적 사건이 남성 중심으로만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죽음으로 빚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주목해 볼 때,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이로부터 ‘삶/죽음’에 관한 문화적 읽기를 시도할 수 있다. 한국의 많은 신화에서 여성이 희생제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여성의 죽음은 서사 변형의 주요 국면마다 등장한다. 그중 신의 좌정 경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에서 언제나 여성의 죽음이 서사 전개에 개입한다. 죽음의 문제가 특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더욱이 죽음 사건이 신화적 사건의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화와 여성의 죽음에 대해 특별히 조명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고는 신화에서 여성 죽음의 서사와 죽음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새롭게 읽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무가와 의례를 대상으로 죽음에 주목한 기존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죽음과 관계 깊은 무가나 의례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도출 하려는 시도으로써, 연구 대상의 특수성과 개별성에 바탕을 둔 연구가 있다. 정제호의 ‘관북지역 <바리공주>’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불완전한 각편으로 평가받고 있는 관북지역본 <바리공주>를 대상으로 서사의 특수성을 분석 하고, 바리공주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해명하였다.¹⁾ 신호립은 함경도 망목 굴의 제차인 ‘산천굿’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종교 텍스트 로서 가지고 있는 의미지향”을 고찰하였다. 산천을 “이승과 저승이라는 이 원적 공간 사이”에 있는 “제 3의 공간”이라고 하면서 “무속 향유층의 죽음 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바 있다.²⁾ 윤준섭은 <도량선비·청정각시>무가에서 청정각시의 죽음의 의미를 희생열의 전통에서 이해하고, 청정각시와 조 선조 열녀들을 비교하였다.³⁾ 이외에도, 개별 서사무가와 특정 의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무속의 죽음관⁴⁾ 및 해당 신의 특별한 죽음 의미⁵⁾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유사한 서사 체계 또는 비슷한 신격을 지닌 무가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죽음관, 저승관을 통합적으로 살핀 연구가 있다. 유정월 은 망자 천도굿에서 불리는 <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를 비교·분석하여, 두 무가를 통해 ‘죽음관이 젠더화되어 있음’을 해명하였다.⁶⁾ 구체적으로

1) 정제호, 「관북지역<바리공주>의 ‘죽음’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25, 한국무속학회, 2012, 7~41쪽.

2) 신호립, 「산천굿 무가사설의 구성적 특징과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무속학』, 28, 한국무속학회, 2014, 215~246쪽.

3) 윤준섭, 「<도량선비·청정각시>에 나타난 청정각시 죽음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233~270쪽.

4) 신호립, 「함경도 서사무가 <대감굿>에 나타난 죽음의 두 층위와 제의적 의미」, 『한국 어외문학』, 4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5~29쪽.

5) 오세정, 「<도량선비 청정각시>의 서사 구조와 죽음의 의미」, 『한국무속학』, 45, 한국 무속학회, 2022, 117~145쪽.

6) 유정월, 「무속신화의 젠더화된 죽음관과 위무의 두 가지 방식-<바리공주>와 <차사본

두 신화에서 각각 ‘여성적 천도 원리’와 ‘남성적 천도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속의 세계에서 여성적 천도원리가 남성적 천도원리를 포함”⁷⁾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굿의 주 담당층이 여성이기도 하거니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무속 문화에 더 친밀하다고 알려져 있다.⁸⁾ 이에 따라 무속과 죽음의 문제는 여성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젠더화된 죽음 관념을 통해서 무속의 죽음관을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데 기여한 연구라 하겠다. 유형동은 함경도의 망자 천도굿에서 연행되는 무가, 〈도랑선비〉,〈짐가제〉,〈바리데기〉의 서사를 각각 분석하고, 연행 맥락에서 무가의 기능을 탐색함으로써, 세 무가에 담긴 저승 관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⁹⁾

죽음에 주목한 신화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만큼,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부분 해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죽음 논의들이 삶 이후의 다가올 죽음을 상정하고,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공간적으로는 이 곳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죽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김열규는 죽음을 삶의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풀이)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화학회, 2015, 69~99쪽.

7) 유정월(2015), 위의 논문, 95쪽.

8) 김현선은 굿과 여성이 세 가지 측면에서 심층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1) 굿의 담당층에서 여성이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한다는 점, (2) 단골 고객이 여성이라는 점, (3) 여신의 신격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굿에서 여성은 생산과 수요자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김현선, 「굿과 여성, 그리고 신화」, 『서울 진오기굿-바리공주연구』, 민속원, 2011, 42~47쪽 참조.

무속신화에서 여성의 활약이 독보적이라고 해서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둠이 빛의 존재를 밝혀주는 것처럼, 신화에서 여성 죽음의 서사가 특별한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는 남성의 행위와 임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9) 유형동, 「망목굿 巫歌에 나타난 저승觀念의 談論的 研究-〈도랑선비〉, 〈짐가제〉,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86, 중앙어문학회, 2021. 207~243쪽.

한복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⁰⁾ 본고에서는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죽음의 사건을 단지 삶의 대칭으로만 보지 않으며, 죽음 너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의 요소를 확인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와 죽음의 관점을 달리한다. 이는 곧, 무속신화에서 여성의 죽음을 관통하는 삶의 다른 이면을 보는 것이며, 동시에 삶 가운데 있는 죽음을 통해서 문화적 의미를 탐색하려는 것과 통한다.

논의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여성이 어떻게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죽음의 원인 및 대응 방식을 살피기 위해 죽음의 서사 구조를 여성과 죽음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장은 신화마다 여성 죽음에 담긴 자질을 탐색하고, 죽음이 제시하는 신화적, 상징적인 읽기를 시도함으로써 죽음의 문화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는 천도굿과 관련한 무가에만 한정하지 않고 무속신화 전체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죽음의 문화적 의미를 살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의 공백을 채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신화 속 여성 죽음의 서사 구조

무속신화의 여성은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혹은 어머니라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딸, 아내,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무속의 여성들이 사는 방식은 가정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과업의 수행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가족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무속의 여성에게 주어진 삶을 이해하게 된다. 여

10) 김열규는 “삶 속에 보이지 않게 간직되어 있던 죽음이 어느 날 문득 다 갖추어진 모습으로 삶 전체를 뒤집어 보이는 것뿐” 삶 속에 있는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으로 죽음 관념을 설명한다. 김열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궁리, 2007, 54~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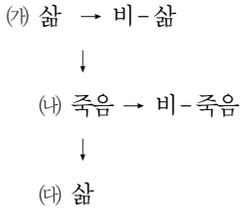
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진다. 가령, 여성이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대하는 효심이 강조되거나, 출산과 양육을 잘하고, 내조하는 여성이라는 자질을 얻는다.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목숨 걸고 생명수를 구하는 모습은 절대적인 효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는 아들 할락궁이가 부친을 찾아 떠나도록 일러주고, 자신은 장자에게 희생되어 이들을 지켜내는 헌신적인 어머니상의 전형을 그려낸다. <도량선비·청정각시>에서 청정각시는 혼인 첫날 밤 비명에 죽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죽음도 불사하는 열녀의 모습을 따른다.

이와 같이 여성이 겪는 죽음의 상황과 문제의 해결 과정은 신화마다 다르지만, 여성은 아버지, 아들, 남편으로 인해 죽음 사건과 마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법이 없다. 신화마다 인물의 겪는 상황이 다르고 갈등의 요인이 다름에도 언제나 여성은 죽거나 죽임을 당하는 동일한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신화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에서 삶과 죽음을 풀어나가는 특별한 서사 전략을 통해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인식과 삶의 방식, 살아가는 과정에 담긴 문화를 읽을 수 있다.

신화마다 여성의 신분과 자질이 다르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신직(神職) 다르며, 이에 따라 신화가 불리는 제의 맥락 역시 다르지만, 여성의 죽음이라는 신화적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몇 가지 죽음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신화의 서사 구조를 죽음 사건에 따라 도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죽음에 얽힌 공통의 신화적 사건은 ‘신화소(mytheme)’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신화소란, 레비스트로스가 오이디푸스 신화를 분석하면서 설정한 분석의 개념으로, 그는 “이러한 신화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배열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문화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신화소들 사이의 병렬적 관계를 통해 문화 속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랑그를 추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0, 248~284쪽 참조.



위의 도식은 신화에서 여성 죽음의 서사가 지니는 구조적인 상동성을 보여준다. 여성의 살아 있음은 죽음을 거쳐 부활 후에 다시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개되기에, 이를 삶의 순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사전적 의미는 “사는 일, 또는 살아 있음” 뜻함과 동시에 “목숨” 또는 “생명”을 의미한다.¹²⁾ 살고자 하는 생의 의지는 죽음을 전제하고, 동시에 죽음 사건을 통해 비로소 또 하나의 다른 삶이 전개된다. 이에 따라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시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때 (가)와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은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없다. (나)의 죽음을 계기로 세속과 신성이라는 가치의 전도(顛倒)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삶의 의미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삶에서 또 다른 삶의 과정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삶이 아닌 것, 곧 ‘비-삶’이 전제하고 있다.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이어질 때에도 죽음이 아니라는 ‘비-죽음’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비-삶’과 ‘비-죽음’의 설정과 그것의 의미 분석을 통해 거시적으로는 ‘삶-죽음-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처음의 ‘삶’은 주어진 삶의 단계로 신화적 인물이 처한 최초의 상태를 말한다. 부모의 출산으로부터 딸이라는 아이의 탄생, 혹은 남편과 혼인하여 아내 되거나 자식을 출산하여 어머니 되기 등, 삶의 단계에서 여성은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검색일: 2022. 10. 24)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되어 그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받는다. 모든 신화에서 최초의 사건은 이 ‘삶’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비롯한다.

신화의 여성에게 주어진 최초의 삶은 평범함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순조로워 보였던 삶에서의 일상이 파괴되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비-삶’의 단계에서 삶이 순탄치 않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비-삶은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여정을 말하며, 죽음에 이르기 전이나 혹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 중인 삶을 말한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겪고 그것을 감내하는 서사가 이에 해당한다. 육신은 이승에 살아 있으나 죽음에 가까운 삶이다. 특별히 ‘비-삶’의 수난이 오롯이 여성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것은, 수난의 원인이 ‘딸’, ‘아내’, ‘어머니’라는 이유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비-삶의 단계는 여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운명론적 사건이라 하겠다.

(나)에서 ‘죽음’ 단계는 이승에서의 삶이 잠시 중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여성이 자발적 죽음을 선택하거나 악인의 악행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흔히 인간의 일생을 출생과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시간에 따라 이야기할 때, 죽음은 삶의 끝에 오는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신화에서 여성의 죽음은 서사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두 개의 삶을 매개한다. 이는 곧 이승에서의 (최초의) 삶과 신성을 부여받고 신이 된 이후의 (최후의) 삶 가운데 죽음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듯 죽음이 두 개의 삶을 매개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 ‘비-죽음’의 단계가 있기에 가능하다. 신화의 여성은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하거나, 이승에서 생이 마감될 때 바로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죽음의 단계를 거친다. 이는 이승의 관점에서 죽어서 없어짐, 혹은 사라짐으로 형상화되지만, 죽음 사건 이후에도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가령 여성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사 전개에 개입하기도 하고, 마치 살아 있을 때처럼 행위함으로써, 비-죽음을 그리는 것이다. 결국, 죽

있지만 살아 있는 상태, 곧 죽지 않은 상태임을 가리켜 이 단계를 ‘비-죽음’이라 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죽음은 삶의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나 장치로 기능한다.

마지막에 (다)에서 제시한 ‘삶’은 앞에서의 모든 단계를 거치고 단계마다 삶에서의 갖은 흔적과 자국이 남아 새로이 만들어내는 삶이다. 그야말로 삶과 비-삶, 죽음과 비-죽음이 얼룩지고 번져있는 삶을 의미한다. 여성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최후에 맞이하는 삶에 대해서 단순히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적인 두 단어로는 설명이 어렵다. 삶과 죽음이 얼룩진 죽음 이후의 삶이란, 언어의 분절성으로 분절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삶과 죽음 중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얼룩’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화의 언어를 고려할 때, 현실의 경험적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근본적 진실을 형상화한 것이 신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신화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실과 직접 관련되지만 동시에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삶/죽음의 사건은 인간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조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지만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에 이러한 신화적 언어로 형상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신화 속 여성 서사의 최후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 삶/죽음의 ‘번짐’, ‘영킴’, ‘얼룩’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신직(神職)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받으며 신으로 좌정한다. 최초의 삶에서 부여받았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이제는 인간 세계 전체를 향해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무속의 여성이 보여주는 최후의 삶이 최초의 삶보다 역할과 지위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주어진 최후의 삶이 최초의 삶보다 더 높고 더 가치로워 졌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흔적과 자국들이 한데 얼룩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으로 여성 죽음의 신화적 사건을 요약하면, ‘(가) (인간 세계에서)

살아 있는 여성이 비-삶으로서 삶을 살다가, ‘(나) 죽어서도 비-죽음으로 살아가고’, ‘(다) (신성 세계에서) 또 다른 삶을 얻어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성 죽음의 서사는 최초로 주어진 여성의 삶이 신화적인 삶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시에 죽음의 노정을 담은 서사¹³⁾라고 하겠다.

여기서 죽음은 비-삶을 전제하며, 삶은 비-죽음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삶이 아닌 것이라야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죽음이 아닌 것이라야 삶이 될 수 있다. 여성 죽음의 서사는 삶에서 비-삶으로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비-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삶이지만 삶이 아닌 것, 죽어도 죽지 않음을 보여주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서사의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무속의 여성들은 죽음을 통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신화적 주인공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죽음/삶의 서사화 방식

1) ‘삶’에서 ‘비-삶’으로의 서사

최초의 상태인 ‘삶’에서 ‘비-삶’의 상태로 변화하는 신화의 사건은 운명론적인 성격을 지닌다. 서사의 주체가 모두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발단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특별히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다. 그저 주어진 운명이 딸이라서, 귀한 가문의 처녀라서, 혹은 무능한 남편을 둔 아내이기에 죽음과 연결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운명적으로 주어진 수난은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여성에게 비-삶은 삶과

13) (가)-(나)-(다)로 이어지는 서사 전개는 통과의례의 과정과 닮아있다. (가)는 딸, 아내, 어머니의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상태로 진입을 시도하는 단계로 분리 의례의 서사에 해당한다. (나)는 (가)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으며,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지도 않은 과도기적 중간 단계로 전이 의례에 해당하는 서사가 된다. (다)는 전이의 단계를 끝내고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 통합 의례에 해당하는 서사이다.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속신화 <바리공주>¹⁴⁾는 ‘버려진 딸’이라는 의미를 지닌 바리공주가 무당의 시조(巫祖神)가 되는 이야기이다. 그녀는 국왕 부부의 일곱째 딸로 태어나, 딸이라는 이유 즉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림 받는다. 바리공주에게는 딸이라는 정체성이 수난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와는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한국 전 지역에서 전승되는 제석신의 유래를 전하는, <제석본풀이>에서 당금애기는 딸이라서 부친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란다. 아홉 명의 오라비를 두고 열 번째 딸로 태어난 당금애기와 바리공주의 삶은 많은 부분 다르면서도 닮아있다. 바리공주와 당금애기에게 주어진 최초의 삶은 버려지는 딸과 사랑받는 딸로서 대비된다. 당금애기도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의 노여움을 받고 버림받는다. 결과적으로 바리공주와 당금애기는 딸이라는 신분으로 주어진 최초의 삶의 모습과 부모의 버림으로 인해 더 이상 딸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공유한다.

아내로서의 여성의 삶 역시 최초로 주어진 일상이 깨지면서 아내의 지위를 아내 상실하고 만다. <도랑선비·청정각시>는 함경도 망목곶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로 남편을 만나고자 갖은 고초를 감내하는 전형적인 아내로서의 여성상을 청정각시를 통해 보여준다. 도랑선비는 혼인 첫날밤에 집에 갔다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연 죽는다. 도랑선비는 청정각시와 재회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 때문에 고행을 겪는 청정각시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다. 청정각시가 과업을 수행한 결과, 부부가 재회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라야 각시 앞에 잠시 나타날 뿐이다. 반면

14) 이 신화는 제주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여성신과 저승신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또한 신화의 사건이 바리공주의 성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 태어나자마자 곧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도 여성과 죽음의 문제가 돋보이는 신화임을 알 수 있다.

청정각시는 도량선비를 만날 수 있는 방도를 얻기 위해 황금산 성인이 일러준 네 차례의 극악의 고통을 수반하는 과업을 모두 수행한다. 그리고 죽은 남편을 이승으로 불러 만남의 기회를 얻는다.

청정각시에게 주어진 최초의 삶은 도량선비와 혼인함으로써 아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돌연 남편이 죽고 떠나는 바람에 각시의 삶은 평온함을 잃었다. 청정각시는 남편을 가진 아내로서의 정상적이지 이상적인 삶을 상실하였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서 남편을 찾는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으로 인해 수난을 겪는 여성은 제주의 무속 신화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최초로 주어진 아내의 삶을 버리고, 남편을 찾아 떠나면서 '비-삶'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제주의 큰곳에서 불리는, 문신(門神)의 내력을 풀이하는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도 이러한 여정을 잘 보여준다. 여산부인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선비를 찾아 칠형제를 남겨두고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떠난다. 그곳에서 여산부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으로 주천강 연못에 빠져 죽는다. 제주도의 농경 신화인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도 자신의 남편 문도령을 찾아 떠나고서 험난한 시련을 겪는다.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를 관장하는 꽃감관의 내력을 풀이하는 <이공본풀이>의 원강아미도 마찬가지이다. 원강아미는 남편 사라도령이 떠나고, 장자의 집에 종노릇을 하며 생계를 꾸려간다. 그녀는 사라도령의 아내이자 할락궁이의 어머니이지만, 장자의 횡포에 시달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

이상으로, 삶에서 비-삶으로의 서사는 모두 최초로 주어진 삶에서 고난을 겪는 사건을 다룬다. 딸, 아내, 어머니로서 주어지는 일상의 평범함이 무속신화의 여성에게는 수월하게 주어지는 법이 없다. 삶과 비-삶의 서사에서 여성의 삶은, 살아있어도 죽음의 상태이거나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삶을 보여준다.

2) '죽음'에서 '비-죽음'으로의 서사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하며 비-삶을 살아 온 여성은 어김없이 죽음의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바리공주는 태어나자마자 딸이라는 이유로 부왕에게 버림받는데, 이는 곧 자신을 낳은 부모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다. 유기된 이후 바리공덕 부부의 구조로 목숨은 부지했지만, 여전히 국왕의 딸이라는 최초의 삶은 회복하지 못하므로 결국 살았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 죽어가는 부친을 살려줄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저승 여행은 이 신화의 주요 테마인 '삶/죽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사실상 이승을 떠나 저승길에 들어서는 순간, 적어도 이승에서의 바리공주의 삶은 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승에서 바리공주가 보여준 행위는 이승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비록 생명수를 얻으려고 무장승의 요구에 응한 것이지만 바리공주는 저승에서 혼인도 하고, 남편의 요구대로 아들 일곱을 낳으며 주어진 과제를 훌륭히 수행한다. 오히려 저승에서야 이승에서 여성으로 살 수 없었던 삶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공주가 이승을 떠났기 때문에 살았다고도 볼 수 없지만, 동시에 바리공주가 저승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즉 이 단계에서 삶과 죽음의 가장 극적인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당금애기의 부친과 그의 오라버니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당금애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때 모친이 나서서 남편을 설득하여 직접 죽이지 않고 딸을 토굴에 가두기로 한다. “토굴에 넣어두면 굶어서라도 죽을 거요, 엄동설한에는 얼어서라도 죽을 거니¹⁵⁾” 라는 모친의 말로 미루어 보면, 토굴에 감금당하는 것은 곧 당금애기의 죽음을 의미한다. 결국 부모, 형제에 의해 죽음이 선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집안의 귀한 막내딸로서 당금애기는 죽는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당금애기는 가

15) 서대석, 박경신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30: 서사무가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80쪽.

죽에게서 살아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가족에게 버려진 이후 당금애기가 삼형제를 낳아 기르고, 아들이 장성해서 외조부를 찾아갔을 때, 부친은 “딸이 없는 사람이라 외손도 없다¹⁶⁾”고 말한다. 부친의 말을 통해 당금애기의 죽음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부친의 기억 속에 사랑했던 고명딸 당금애기는 죽고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금애기는 살아서 출산도 하고 삼형제를 잘 양육했다. 가족에 의해 죽음이 선고된 이후 당금애기가 보여준 출산과 양육의 삶은 비-죽음에 해당한다.

청정각시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에도 끝내 이승에서 남편과의 재회는 실패로 끝난다. 결국 도랑선비가 만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는데, 이는 청정각시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결을 하는 것이다. 청정각시는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자살을 감행한다.

남자는 저승문 앞에 서서 “나는 청정각시오 내 도랑선비를 보게 해주시오.” 하였다.

...(중략)...

그때 도랑선비는 저승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다. 남자는 그 초당문을 열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처를 맞아 두 사람은 거기서 무한한 즐거움을 받았다.

〈도랑선배·청정각시_김근성 본〉¹⁷⁾

위의 예문은 청정각시가 죽고 난 이후 비-죽음의 삶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정각시는 저승문 앞에서도 당당하게 남편을 보게 해 달라 호령한다. 저승에서 도랑선비는 이승에서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온하게 지낸다. 저승이라는 공간만 바뀌었을 뿐, 도랑선비와 청정각시는

16) 서대석, 박경신 역주(1996), 위의 책, 116쪽.

17)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박이정, 2012, 65쪽.

이승에서 못다 한 부부의 삶을 누리며 비-죽음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간다.

바리공주와 청정각시가 죽음 이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비-죽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면, 여산부인은 현몽(現夢)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서사에 개입하여 비-죽음을 드러낸다.

저승으로 향해 가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다. “서울 아기들아, 어서 빨리 눈을 떠 보아라. 산중에서 노루 한 마리가 내려온다. 그 노루를 잡아서 죽일 판으로 두르고 있으면 알 도리 있으리라.”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과연 노루 한 마리가 저 산에서 뛰어 내려오고 있었다.

〈문전본풀이_안사인 본〉¹⁸⁾

예문에서 여산부인은 저승으로 가던 중에 칠형제의 꿈에 나타나 위협에 처한 칠형제를 돕고 있다. 여산부인은 악인에게 살해당했지만, 여전히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승의 일에 개입하면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살해 사건으로 여산부인이 죽음을 맞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식들 곁에 살아서 안위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육신의 죽음과 무관하게 서사에 개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칠형제는 어머니의 현몽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악인을 징치하는데 성공한다.

악인에게 살해당하기로는 원강아미도 마찬가지이다. 장자로부터 죽임을 당한 후에 원강아미는 아들의 꿈에서라도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할락궁이는 친부로부터 생불꽃을 증여받고, 장자 일가족을 몰살하는 데 성공한다. 또 할락궁이가 증여받은 꽃으로 어머니를 환생시키고 주화관장신(呪花管掌神)으로 좌정한다. 어머니의 죽음은 할락궁이가 신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는 데 배경으로 기능한다. 원강아미의 죽음 없이

18)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2016, 193쪽.

는 이공신의 좌정도, 악인에 대한 징치와 복수라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원강아미의 죽음이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공신의 출현이라는 사건에 개입하여, 신화적 사건의 발단이자 완료를 이루게 하는 셈이다.

여산부인과 원강아미는 공통적으로 신화적 주인공의 어머니로서 존재하고, 악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다. 또 살해당한 후에는 아들이 가져다 준 생불꽃으로 환생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할락궁이는 어머니의 뼈를 차례차례 모아 놓고 환생꽃을 뿌렸다. “아이고, 봄잠이라 오래도 잤다.” 머리를 긁으며 어머니님이 살아났다.

〈꽃감관(이공본풀이)_안사인 본〉¹⁹⁾

일곱 형제가 축수를 드렸더니 삼시에 연못이 잦아들었다. 바닥에 어머니님의 뼈가 살그랑이 있었다. 이 뼈 저 뼈 도리도리 모아 놓아, 도환생꽃을 위에 놓고 금봉채로 한 번 후려쳤다. “아이고 봄잠이라, 늦게도 잤구나.” 머리를 긁으며 어머니님이 살아났다.

〈남선비(문전본풀이)_안사인 본〉²⁰⁾

위의 예문은 아들 할락궁이와 일곱 형제가 어머니를 살리는 대목이다. 그리고 아들에 의해 도환생꽃으로 살아난 여산부인과 원강아미는 부활 후, 동일한 말을 하며 깨어나는 데, 이는 곧 자신이 살해당한 상태를 봄잠을 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죽음 상태를 수면 상태로 인식함으로써 비-죽음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두 신화는 공통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악인이 존재하나 죽은 이가 없다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모순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모호한 상태로 이어주는 효과를 빚는다. 여산부인을 다시 살려낸 아들 녹디생이와 원강아미를 다시 살려낸

19) 현용준(2016), 위의 책, 73쪽.

20) 현용준(2016), 위의 책, 197쪽.

아들 할락궁이는 이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신성한 능력을 획득한다. 어머니로서 여성 죽음은 아들이 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무속의 여성들이 보여주는 죽음에서 비-죽음으로 가는 서사는 신화의 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며, 일정부분 신성 획득의 기제로서 작용한다. 남성신의 출현이 신이한 행적의 결과로서 신직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성을 획득한 남성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는 여성의 죽음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나아가 비-죽음의 서사가 신화의 사건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일맥상통한다.

3) '삶/죽음'의 변집으로서의 서사

신화에서 여성의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완성된다. 이때 죽음 이후의 삶은 인간 세계에서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상태가 소멸되어 완전히 새롭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이전 삶의 전(全) 과정이 녹아 스며든 삶을 의미한다. 저승에서 약수를 구해 아버지의 생명을 살린 바리공주, 각고의 노력 끝에 저승에서의 남편과 해후(邂逅)하는 청정각시, 이 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망자에게 저승에서의 삶을 인도해 주는 신이 되는 것이다. 여산부인은 죽어서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 되었다. 이승에서의 삶은 가난한 살림에 먹을 것이 부족하여 궁핍하게 살았지만, 죽음 이후 부엌에 좌정함으로써 따뜻한 곳에서 인간에게 제사를 받으며 풍요롭게 살아간다. 생불꽃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원강아미는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아들, 남편과 만나 온전한 가족을 이룬 새 삶을 살게 된다. 이처럼 무속신화의 여성들에게 죽음 이후 주어진 새 삶은 이전 삶에서 보여주었던 주요 사건들과 연계되며 삶의 연속성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런데 최후의 삶이 갖는 서사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 먼저 최초의 삶과 최후의 삶을 매개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체 삶에서 중간에 위치한 죽음 사건을 거시적으로 보면, 죽음은 여성의 결핍을 해소

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바리공주와 당금애기는 딸이라는 결핍이 죽음의 발단이 되었지만, 죽음 사건 이후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림으로서 딸로서 야기되는 결핍을 해소한다. 남편이 떠난 아내의 결핍은 청정각시와 여산부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죽음 이후 남편과 재회함으로써 결핍을 충족한다. 여산부인과 원강아미처럼 악인에게 살해당한 어머니의 결핍은 아들이 활약하여 악인을 징치하는 데 성공하고 결핍이 해소된다. 정리하면 여성의 죽음과 이후 이어지는 삶은 생전에 여성이 지니고 있던 결핍이 충족되고 갈등이 해소되면서 종결된다. 이때 결핍 해소의 분수령이 되는 것이 여성의 죽음이며, 죽음과 비-죽음의 단계에서, 새롭게 주어진 삶의 단계로 횡단하는 데 죽음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에 따라 마지막에 주어지는 최후의 삶은 삶/죽음이 한데 번져있는 상태로서의 삶을 구성한다.

생과 사는 흔히 생성과 소멸로 대비된다. 그런데 신화에서 여성의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 주어진 삶을 갖추기 위해 잠시 중지되었다는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중지함으로써 그 공간에는 삶과 죽음이 들어있지 않은 비움의 상태가 된다. 결핍에서 결핍의 해소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에는 비움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결핍된 최초의 상태를 충족으로 이어줄 수 있는 죽음의 논리를 읽어 낼 수 있다.

결핍 - (비움) - 충족

많은 여성 신들의 행적을 종합해 보면, 결핍이 충족되는 사건에는 항상 죽음이 문제적으로 등장한다. 죽음으로부터 야기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앞서 최초로 주어진 삶의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원강아미가 죽어야 할락궁이가 신의 역량을 갖출 수 있으며, 당금애기가 딸로서의 삶에서 죽어야지만 삼형제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

하다. 비움의 단계를 거쳐야만 채움의 전제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무속신화의 여성의 삶은 죽음으로 완성되고 죽음으로써 살아가는 삶이라 하겠다. 죽음으로 시는 것과 죽음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무속 신화의 여성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최후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성(신)은 인간에게 제사를 받으며 신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죽음 사건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다. 가령, 바리공주는 저승길을 인도하는 삶을 살며, 죽음을 마주하는 이들의 슬픔을 위무(慰撫)한다. 망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준다는 무속신의 존재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위로가 될 만하다. 청정각시 역시 죽음 이후 망자의 저승길을 인도하는 신으로 새 삶을 이어간다.²¹⁾ 이들 모두 무속의례에서 인간의 부름을 받는 신으로, 죽음 가까이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신으로 존재한다. 인간이 신에게 받는 도움에는 한계가 없다. 신화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모든 순간마다, 죽음 이후 저승으로 가는 여정까지도 신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한다.

4. 죽음의 문화적 의미

지금까지 무속신화의 여성 죽음의 서사 구조와 서사화의 양상을 통해, 여성이 죽음에 이르는 사인(死因)과 죽음 이후 최후의 삶이 갖는 의미에

21) 바리공주와 청정각시가 보여주는 ‘헌신과 희생이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을 통해 두 신화의 공통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바리공주>에서 죽음은 극복되고 갱신되는 반면, <도량선비·청정각시>에서의 죽음은 철저히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바리공주 신화는 죽음과 생명의 존재론적 성격에 주목하는 한편, 청정각시 신화는 죽음을 수용하고 다음의 운명을 도모하는 인식론적 태도를 중시한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오세정(2022), 앞의 논문, 135~139쪽.

대해 살펴보았다. 무속신화의 여성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죽음 사건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과업을 수행한다. 그 죽음은 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비극적 사건으로서 소멸을 뜻하지 않고, 죽음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무속 신화의 여성 죽음은 신성한 존재의 불멸(不滅)을 믿게 하는 신성한 사건으로 이해된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말로 설명한다. 이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늙음과 병듦을 거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마찬가지로 무속의 세계에서도 삶에서 죽음으로 또는 죽음에서 삶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삶-죽음-삶으로 펼쳐지는 여성 죽음의 서사 구성은 자칫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비-삶과 비-죽음이 개입하여 삶과 죽음에 섬세한 경계를 그어 놓는다. 즉, 무속 여성들의 삶이 그 자체로 '삶/죽음'의 경계를 횡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비-삶의 경우 살아 있어도 죽음에 가까운 삶을 말해주고, 비-죽음은 죽어도 삶에 가까운, 살아 있는 죽음으로 이해된다. 전자는 신화의 여성이 최초로 주어진 삶을 영위하지 못하므로 삶의 영역에 속한 죽음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죽음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인물이 최초로 욕망하던 삶을 행하며 살아가므로 살아 있는 죽음이 된다. 이러한 신화의 사건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삶과 죽음을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과 죽음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진다.

얼핏 보면, 삶과 죽음은 너무나 대칭적이고 대척적이라 구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그만큼 의미도 뚜렷해 보인다. 그런데 인간에게 연속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삶과 대조적으로 순간의 거대한 사건으로서의 죽음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사태임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이 두 세계는 동시에 서로 전제가 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정서적 측면이나 논리적 측면에서 결코 쉽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미가 부여되며, 다양한 인식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래서 삶/죽음, 인간의 이 근원적 문제는 명쾌한 논리적 의미체계로 포착되기보다는 신화와 같은 서사로 표출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흔히 삶과 죽음은 한쪽이 다른 쪽을 긍정하지 않는 것으로, 곧 삶이 성립되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성립되면 삶은 소멸된다는 식의 모순 관계로 파악된다. 그런데 한국 무속 신화의 죽음과 관련된 서사에서 보았듯이, 삶과 죽음이라는 모순항 사이에 비-삶과 비-죽음이라는 중간항들이 존재한다.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닌 세계가 있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가치가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세계에 대한 기획은 오히려 제한적이고 비극적인 현실의 삶에 있어서 역동성을 부여한다. 삶의 세계, 이승에서 그 바깥 세계, 저승으로 인간의 시선이 옮겨가고 그 순간 삶과 죽음은 단순 대립이나 모순, 대척적 관계를 벗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제 삶과 죽음의 관계는 대립 관계에서 상호 관계로 또 한 번 전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에 대한 실마리는 신화적 사건의 종결부에서 찾을 수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구분하며, 삶과 죽음의 영역을 나누어 보아도, 결국 여성이 부활을 통해 다시 찾은 최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 죽음이 엉켜 있는 형국이다. 삶 속에 죽음, 그리고 죽음 속에 삶은 단순히 삶과 죽음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죽음을 통해 본 신화의 세계에서 분명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따르는 것으로, 신화는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사건을 구분한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삶 전체에서 삶/죽음은 서로 스며들어 얼룩져 있다. 얼룩진 삶/죽음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상호 배타적인 순수한 삶과 순수한 죽음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무속 신화에서 여성의 삶은 삶에도 죽음이 스며들어 있고, 죽음 가운데 삶의 얼룩을 찾을 수 있다.

여성 죽음의 서사를 통해서 삶/죽음의 문화는 다시 읽기가 가능하다.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하는 한국인의 오랜 신앙은 죽음을 기피하고 부정(不淨)하게 여기는 죽음 관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죽음에 대한 기피와 삶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말 속에는 생(生)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 그런데 만약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이승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면, 삶이라는 시간을 이승에서의 시간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 펼쳐지는 새로운 삶을 한 번쯤 꿈꿔 볼 만하다. 그렇다면 죽음 사건은 이승과 저승이라는 공간의 이동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삶의 영속성을 기대하며 여전히 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죽음을 대할 수 있다.

한국의 많은 무속 의례에서 죽어서도 삶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죽은 이들을 위해 마련하는 진오귀굿의 가장 큰 목적은 극락왕생(極樂往生)에 있다. 즉 망자가 극락왕생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도록 새 삶을 위해 빌어주는 것이다. 또 죽은 처녀 총각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마련하는 결혼굿은 죽음 이후에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믿어 망자의 새 삶을 빌어주는 의례이다. 이러한 혼례 의식은 망자가 저승으로 생을 옮겼을 뿐, 죽음이 생의 종말이 아니라는 믿음을 암시한다. 또한 바다에 빠져 죽은 넋을 위로하고 망자를 극락으로 보내주기 위해 마련하는 무혼굿에서 무당은 차사가 오는 길에 인정을 건다. 인정을 건다는 것은 “한지로 만든 저승돈, 불교의 다라니, 현세에 사용하는 이승돈을 덮어 놓는 것”²²⁾으로 열 두 문을 통과할 때마다 사용될 돈을 놓는 의례의 제차를 말한다. 이처럼 죽음 이후 망자의 새 삶을 빌어주는 의례 문화를 통해서도 삶과 죽음이 얼룩진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22) 현용준·이부영, 『제주도 무혼굿』(한국의 굿7), 열화당, 1985, 57쪽.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벗어난 인간의 죽음은 종교의식이라는 인위적인 의식을 만들어 냈다. 죽음은 이러한 의식에 의해 문화가 될 수 있다.²³⁾ 자신이 믿는 종교로부터 인간은 죽음을 대하는 지혜를 구하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무속신화를 비롯한 의례와 죽음 문화에 대한 전승력은 죽음 이후 망자의 삶을 기리고자 살아 있는 자들의 기도가 발휘하는 힘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무속 신화에서 여성의 죽음에 주목하여 죽음의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삶/죽음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무속 신화의 여성의 삶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죽음 이후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에 착안하여 ‘삶→죽음→삶’이라는 공통의 서사 구조를 추출하였다. 이는 자칫 여성의 삶이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거나 혹은 죽음 이후 더욱 숭고한 가치를 지닌 새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로 오해받기 쉽다.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의 이 서사 과정에서 신화의 여성들이 최초로 주어진 삶으로부터 ‘비-삶’으로서의 삶을 살고, 죽음에서도 ‘비-죽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삶’과 ‘비-죽음’의 사건을 통해 삶/죽음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읽기가 가능해진다.

무속신화의 여성들이 이승과 저승의 삶을 횡단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문화 창조의 주역이 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동안 신화에서 보여주었던 남성신의 활약에 가려져 여성의 죽음에 내재하는 문화적 의미와 신화의 논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여성

23) 이 죽음은 인위적, 인공적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죽음을 만들고 생산한다. 김열규 (2007), 앞의 책, 14~15쪽.

의 죽음은 새로운 신의 출현을 예고하는 필연적인 서사 장치로서 기능하며, 삶/죽음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 읽기에 이바지한다.

신화의 세계에서 삶과 죽음은 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단순한 논리로는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다. 바리공주가 저승에 가서 혼인하고 출산을 한 사건은 삶인가? 죽음인가? 원강아미가 장자에게 살해당한 후 잠에서 깨듯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삶인가? 죽음인가? 이러한 물음은 무엇이 삶이며, 무엇이 죽음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통한다. 무속 신화의 여성들은 이승에서도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저승에서도 이승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삶, 죽어서도 살아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무속의 여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삶과 죽음의 자국들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최후의 삶으로 고스란히 녹아든다.

무속의 여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삶과 죽음은 더 이상 대립 관계가 아니다. ‘비-삶’과 ‘비-죽음’의 상태를 살아가는 신화 속 여성의 삶을 통해 삶과 죽음을 상호 관계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여성 죽음의 서사는 죽음이 자국으로 새겨진 삶, 삶으로 얼룩진 죽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삶/죽음에 대한 문화 읽기는 삶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고 죽음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죽음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존재한다. 죽음만 따로 있거나 죽음이 없는 인간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유구한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과거의 죽음과 오늘날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죽음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당연한 상식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죽음을 생각할 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현대인들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술(醫術)에 의탁하여 연명 치료를 하는가 하면, 갑작스런 사고사로 인한 타인의 죽음을 마주할 때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한다. 그나마 자연사는 복을 누리는 죽음

이라 하여 호상(好喪)²⁴⁾이라고도 하지만, 죽음을 대하는 순간이 달갑지 않기로는 마찬가지이다.

누구라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간에게 죽음 사건은 매 순간 특별하다.²⁵⁾ 한국의 무속 신화에서 여성 죽음의 서사는 죽음에 대한 공포,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슬픔을 위로하는 데 실마리를 제시한다. 죽음은 잠시 삶을 중단하고 비움으로써 이전의 삶에서 결핍되었던 것들을 채움의 기회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이승과 저승의 삶이 단절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삶이 죽음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많은 신화 속 여성의 죽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삶 속에 스며있는 죽음, 죽음으로 얼룩진 삶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다.

24) 김열규는 ‘호상(好喪)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조건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수를 누릴 만큼 누리는 것과 무병으로 편히 임종을 맞이하는 것, 자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여한 없이 죽은 것이다. 김열규 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철학과현실사, 2001, 17쪽.

25) 죽음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죽음이 단순한 생리학적 현상이 아니라, 믿음, 정서, 행위 등이 결부된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창익, 『죽음을 사색하는 시간』, 인간사랑, 2020, 32쪽.

참고문헌

- 서대석, 박경신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30: 서사무가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462쪽.
-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박이정, 2012, 1~383쪽.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2016, 1~314쪽.
- 현용준·이부영, 『제주도 무혼굿』(한국의 굿7), 열화당, 1985, 1~99쪽.
- 김열규 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철학과현실사, 2001, 1~258쪽.
- _____,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궁리, 2007, 1~308쪽.
- 김헌선, 『서울 진오기굿-바리공주연구』, 민속원, 2011, 1~476쪽.
-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0, 1~354쪽.
- 신호림, 「산천굿 무가사설의 구성적 특징과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무속학』 28, 한국무속학회, 2014, 215~246쪽.
- _____, 「함경도 서사무가 <대감굿>에 나타난 죽음의 두 층위와 제의적 의미」, 『한국어외문학』 4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5~29쪽.
- 오세정, 「<도랑선비 청정각시>의 서사 구조와 죽음의 의미」, 『한국무속학』 45, 한국무속학회, 2022, 117~145쪽.
- 유정월, 「무속신화의 젠더화된 죽음관과 위무의 두 가지 방식-〈바리공주〉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학회, 2015, 69~99쪽.
- 유형동, 「망목굿 巫歌에 나타난 저승觀念의 談論的 研究-〈도랑선비〉, 〈짐가제〉, 〈바리테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86, 중앙어문학회, 2021, 207~243쪽.
- 윤준섭, 「〈도랑선비·청정각시〉에 나타난 청정각시 죽음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233~270쪽.
- 이창익, 『죽음을 사색하는 시간』, 인간사랑, 2020, 1~515쪽.

ABSTRACT

A Study on the cultural sense
for woman's death through a Korean Shaman myths

Kang, Ji-yeon · Oh, Se-jeong

This study aims to read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culturally anew, focusing on the narrative of women's death in Shaman myths. In shaman myths, death and resurrection events after death occur only in women (goddess). There is always death in the life of a woman who lives as a family member of a daughter, wife, and mother. Women's death situations and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ms vary from myth to myth. However, women in myths are performing a common task in that they face a death incident while playing a role as a family member. In addition, the common narrative structure of 'life → death → life' can be confirmed in the process of a woman's life leading to death and a series of events leading to another life after death. However, there is always a middle term between 'non-life' and 'non-death' in the narrative from life to death and the narrative from death to life. From this, a new cultural reading of life/death could be explor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arrative structure and narrative method of women's death, the women of myths are resolv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living and dead life. Such death is not a tragic event that signifies the end of life, but shows the continuity of life in that it becomes an immortal existence that never dies as death. In this respect, the death of a woman in shaman myths is understood as a sacred event that leads to belief in the immortality of a divine being. Women face death as a mechanism to resolve the deficiencies given to life. Through this, you can read the myth of enabling filling with emptiness.

It is natural for women in shaman myths to become the protagonists of cultural creation in that they rule the human world by traversing the

lives of this and the afterlife. However, the cultural meaning and logic of the myths inherent in the death of women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because of the male god's activities shown in the myths. Death functions as an inevitable narrative device that heralds the emergence of a new goddess, and contributes to reading a new culture in that it causes an expansion of the perception of life/death.

Key Words

Death, shaman myth, woman, life, culture, death narrative, Princess Bari, Danggeum-aegi, Chungjeong-gaksi, Lady Yeosan, Wongang-ami. non-death, non-life

논문투고일: 2022.10.25.

심사완료일: 2022.11.07.

게재확정일: 2022.11.07.